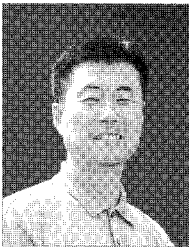


2010년도 하반기 계육산업 전망

하반기 종계 · 부화업 전망

이 상 배 이사
(주)삼화원종

남아공 월드컵 B조 예선 한국과 그리스전이 있던 지난 6월 12일 저녁, 기분 좋은 경험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필자는 축구를 응원하기 위해 야외보다는 가족과 함께 거실의 TV 앞에 자리했다. 경기 휘슬이 울리기 전에 유로 2004에서 포르투갈, 체코, 프랑스를 제물로 삼아 우승한 전력 이 있는 강팀, 그리스를 과연 우리 국가대표들이 제압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함께 우리 선수의 기량도 많이 향상되었다 하여 한편으로는 승리를 기대했다.

그러던 차에 연초에 닭고기 소비와 관련하여 기고했던 내용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물론 치킨의 소비증가에 대한 호기심이었다. 이미 과거 월드컵이 외식산업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은 많은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지만, 과연 내가 사는 동네에서도 월드컵 축구경기와 치킨 소비가 연관이 있을까? 하는 궁금증에 거실 한구석에 쌓여

있는 전단지를 한참 만에 찾아내어 왠지 모를 기대감에 동네 치킨집에 전화를 했다.

전화기에서 갑자기 “치킨 한 마리 배달하려면 2시간 이상은 걸립니다!” 하며 미안해하는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축구 시작과 함께 주문해봤자 밀려있는 주문량 때문에 경기 종료 후어나 치킨을 먹을 수 있다는 결론이었다.

양계업에 종사하는 관계로 나는 그리스전의 승전만큼 기분 좋은 일을 만끽했다. 독자들이 이 글을 접하는 7월초에도 우리나라가 16강을 거쳐 8강, 4강까지 올라간다면 적어도 경기 시작 4시간 이전쯤에 미리 주문해야 치킨을 맛보며 축구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상상하면서, 그날 한국팀 승리를 위해 목이 터지도록 응원한 결과 첫 승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1. 국내 · 외 경기흐름

세계 경제는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위기가 반복되고 있다. 2009년 하반기부터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과정에서 스페인, 그리스 등의 재정위기의 확산으로 더블딥 우려가 제기되는 등 낙관과 비관이 교차하고 있는 것도 사실로 보인다. 유럽 몇 개국이 추가로 재정적

자로 국가 부도위기에 몰릴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시시각각으로 요동치는 환율, 금값의 고공행진, 주시가격의 급등락 등 그야말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현재 경제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면 유로 지역 일부 국가의 재정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와 이에 따른 금융부실 확대 가능성은 제2의 리먼브러더스 사태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글로벌 경기회복에 악영향을 줄 것은 자명한 사실로 보인다. 유로 지역의 경기침체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는 하지만 국내 금융·외환 시장의 불안과 수출 감소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와는 반대로 2010년에도 중국의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미국경제의 회복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세계 경제의 긍정적인 흐름은 수출 증가를 촉발시켜 수출국인 우리경제에는 좋은 영향을 미쳐 국내 소비시장이 활기를 찾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감도 강하게 작용된다.

2. 환율 및 닭고기 수입현황

2010년 초반 주춤하던 환율 하락세가 3월 이후 가속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1,100원대

로 급락하여 경기지표가 호전된다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또한 지속적인 무역수지 흑자,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등 달러가 공급되고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의 상향조정이 원화의 강세를 이끌었다.

그러나 5월로 접어들며 유로의 재정위기 확산과 천안함 사태로 촉발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며 환율이 재상승하여 매대기준율이 5월 25일 1,272원 고점을 찍었다가 하락세로 접어드는가 했더니 6월 9일 다시 1,253원까지 상승을 보였다가 약세로 돌아서 6월 21일 현재 1,179원선까지 다시 하락했다.

이렇듯이 당초 환율이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당분간은 환율의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달러의 강세가 일시적이고, 유로의 재정위기가 안정화된다면 하반기 환율은 다시 안정을 찾을 것이란 전망이 아직까지는 우세한 편이다.

닭고기 가격의 강세와 연초의 환율안정으로 지난 5월까지 약 34,500톤의 닭고기가 수입되었다.

그러나 국내 생산량 증가와 환율의 불안정으로 하반기 닭고기 수입량 역시 상황에 따라 변동 폭이 커질 것이란 관측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2010년도 하반기 계육산업 전망

하반기 종계 · 부화업 전망

3. 국제 곡물가격 전망

현재 국제 곡물가격은 생산량의 증가로 인해 공급이 안정되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009/10년도 아르헨티나의 옥수수 생산이 전년 대비 40% 증가하는 등 주요 수출국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며 공급이 안정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옥수수와 함께 3대 곡물인 소맥, 대두 역시 생산량이 모두 증가하여 글로벌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2010년 상반기 곡물가격은 오히려 하락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2010/11년에는 소맥과 대두의 생산량이 감소할 전망이다. 주요 곡물의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바이오연료 생산에 사용되는 옥수수와 대두의 수요 역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전세계적인 기후이상에 따른 생산성 하락, 수급여건 악화에 따른 투자(기)자금 유입 가능성이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하반기 국제 곡물가격이 상승 추세로 전환된다면 환율과 맞물려 변수는 있지만 소폭의 상승할 가능성도 남아있는 셈이어서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사료가격 역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환율의 불안정성과 곡물가격의 상승 가능성

으로 인해 하반기에는 소폭이나마 상승할 가능성이 예상되므로 온도가 상승하는 고온기에는 사료효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게끔 사양 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국제유가 흐름

국제유가는 5월초까지 강한 상승세를 보였으나 유로의 재정적자 문제가 확산되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09년부터 글로벌 경기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회복되면서 석유 수요가 증가했고, 저금리로 인해 원자재 투기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석유수요가 다소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며, 미국의 투기규제 움직임 등으로 상반기 대비 소폭 하락이 예상된다.

5. 종계 생산성 회복

최근 종계의 생산성은 상당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작년 최악의 터널은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산란 피크 성적만 본다면 이미 많이 회복되는 추세이다. 물론 모든 농가에서 그렇지는 않지만 관리상태가 양호한 농가를 중심으로 회복되고 있음을 느낀다.

2010년도 5월까지 2009년 동월보다 종계는 35만수 가까이 더 입식되었다. 결국 2009년 7월부터 80만수 이상의 종계가 더 입식된 것이다. 이는 당연히 공급과잉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신종질병에 대한 대책과 40주 이후 산란 및 수정률 저하 문제 등은 아직까지 양계인들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어 종계의 생산성이 회복되었다고 속단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

항상 얘기하지만 각자 다른 입장에서 생각하고 논쟁만 한다면 서로의 발전도 더뎠게 된다.

우리나라는 닭을 키우기에 적합한 환경이 아니고, 종계를 관리하는 것 또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부화장은 농가에게 품질 좋은 병아리와 사양관리 정보를 제공하고, 농가에서도 부화장에서 원하는 세밀한 관리와 차단방역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양계인들이 각자 생산성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협력한다면 생산성 저하로 인해 겪는 어려움은 예상보다 빠르게 극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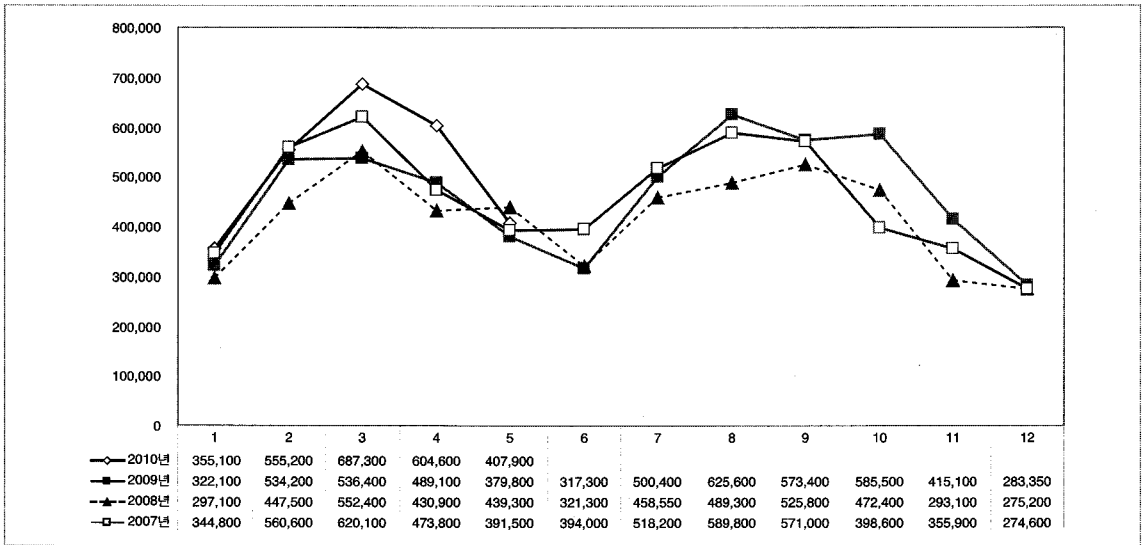
6. 통계자료로 본 하반기 생산 전망

뒷장의 <표 1>에서 보면 2010년도 5월까지 2009년 동월보다 종계는 35만수 가까이 더 입식되었다. 결국 2009년 7월부터 80만수 이상의 종계가 더 입식된 것이다. 이는 당연히 공급과잉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0년도 하반기 계육산업 전망

하반기 종계 · 부화업 전망

〈표 1〉 지난 4년간 종계분양 현황



〈표 2〉 실용계 병아리 생산잠재량 추정

